

국어 조사 '이나'의 함축 해석에서 나타나는 척도의 유형에 관하여

류 병 율

서울 대학교/언어학과 ryuri@snu.ac.kr

On the typology of Pragmatic scales: scalar implicature of '-(i)na' in Korean

Ryu Byung-ryul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고는 서로 다른 용어와 기준들로 일관성 없이 나열되어 있던 이전의 '-이나'의 의미 해석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즉 특정한 양상 척도(개연성, 희구성, ... 등)를 이용하여 '-이나'가 쓰인 맥락에 따라 척도 함축을 해석해 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교착어의 특성을 가진 한국어의 특수조사(혹은 한정사) '-이나'의 함축 해석에서 척도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의미 해석과 형식화의 초석을 다지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먼저 '-(이)나'의 함축 해석에서 나타나는 척도의 유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나'의 함축이 드러내는 척도들을 형식적으로 '선형과 비선형' 척도를 나누고 이러한 문장들이 들어내는 양상을 분류할 것이다.

둘째, 정대호 외(2002)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나/도'가 분류사구와 결합한 문장이 화용론적인 개연성의 척도상에서 하한 값을 유발한다고 제안함에 따라, 본고는 양상을, 이러한 개연성의 척도를 포함한, '인식(진리, 원인, 지식, 평가), 의무(의지), 희구(기원)'의 3가지 양상으로 분류하고, 이에서 '-(이)나'가 유발하는 각각의 척도상의 함축을 기술할 것이다.

1. 서론

본고는 서로 다른 용어와 기준들로 일관성 없이 나열되어 있던 이전의 '-이나'의 의미 해석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즉 특정한 양상 척도를 이용하여 '-이나'가 쓰인 맥락에 따라 척도 함축을 해석해 내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이나'에 대한 선행연구를 특수조사, 도움토씨, 양상과의 관계, 한정사로 보는 시각 등을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이나'의 함축 해석에서 나타나는 척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나'의 함축이 드러내는 척도들을 형식적으로 '선형과 비선형' 척도를 나누고 이러한 문장들이 드러내는 양상을 분류할 것이다.

4장에서는 선행 논의에 따라 본고는 '인식(진리, 원인, 지식, 평가), 의무(의지), 희구(기원)'의 3가지 양상으로 분류하고, 이에서 '-이나'가 유발하는 척도상의 함축을 기술할 것이다. 5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요약한다.

2. 선행연구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시각들을 종합해 보려한다. 여기서는 '-(이)나'를 '도움토씨와 특수조사'와 같이 '양상'으로 고려해온 선행연구와 '한정사'와 같이 '척도와 함축'의 개념을 이용하여 기술한 선행연구들을 살핀다.

2.1 특수조사(도움토씨)로의 분석

김석득(1995)에서는 ‘-(이)나’를 도움토씨 용법과 이음토씨 용법의 둘로 크게 나누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 나타나는 도움토씨들을 의미 ‘정도’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래에 예시된 문장들은 김석득(1995)의 예문들이다.

(1) a.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 b. 당신이나 가시오.

c. 벌써 세 시나 되었다. d. 한 백 명이나 될까

허웅(1995)에서는 도움토씨를 안음성(포용성), 열안성(한계성), 만족도, 확실성의 4가지로 나누고, ‘-(이)나’를 안음성이 있으면서 ‘여럿에서 가림’을 나타내는 것과 만족도에서 ‘넉넉함’을 나타내는 것의 두 가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2) a. 어느 부상병이나 살 마음은 간절할 것이다.

b. 할 일이 없어서 낚시질이나 다닌다.

c. 어제 저녁에 몇 시에나 집으로 갔나?

먼저 안음성(포용성)이 없는 것은: ‘홀로, 특별함, 다름, 가림, 단독’과 같은 유별함을 나타내며, 이것과 저것이 다 같은 성질을 가졌으며, 그것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따로 들어 보이는 개별적인 뜻을 가진 것이다. 즉 여럿에서 가림은 여럿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가려도 상관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확실하지 않으나’,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또는 ‘다른 것은 몰라도’와 같은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두 번째 특성인 만족도의 ‘-(이)나’는 ‘만족함, 넉넉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정도이면 만족’, 또는 ‘넉넉함’의 뜻을 나타낸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강조-놀람의 뜻으로 변저 나가기도 한다. 이 두 ‘-이나’는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류이다. 이상의 논의는 4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홍사만(1983)은 토씨의 하위분류에서 ‘-(이)나’는 이접의 연결조사, 선택표시의 특수조사, 또는 감탄조사 등 삼원적이어서 동음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아래의 예는 선택표시의 특수조사의 예문이다.

(3) a. 극장에나 가거라. b. 장사나 해 볼까.

c. 잠이나 자자. d. 이젠 농사나 짓자.

홍사만(1983)은 조사 ‘-(이)나’의 의의소는 무엇보다 ‘선택’이며, 이접의 기능도 이 선택의 의미에서 파생된다고 보았다. 또한 특수조사 전반이 지닌 감탄의 기능은 조사 분류에서 따로 감탄조사의 하위설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조사 {나}는 항목이 폐쇄된 선택에서만 이접의 기능을 나타내고, 항목이 개방된 선택에서는 수량화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조사 {나}의 ‘소극적 선택’은 화자로 하여금 ‘양보’나 ‘불만’의 의미를 산출하고, 부정어사에 연결될 때 형성하는 수량화 중, 특히 부정문의 경우 그 양태(보편수량화, 존재수량화) 해석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정도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량, 정도사에 연결될 때에는 확대, 과장의 감탄기능이 유도하고, ‘소극적 선택’이나 ‘정도’의 표시기능은 관용어구 형성에 많이 참여하게 되며, 이때의 월의 의미는 화자의 담화입장이나 심리적 감정 요소에 크게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2.2 특수조사와 양상(Modality)

‘화자’가 문장의 명제 내용에 덧붙이는 ‘심리적인 태도’를 ‘양상(Modality)’이라고 한다. 특수조사라는 용어는 양상적 의미와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특수조사 ‘-(이)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나’가 나타나는 문장들의 서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양상의 유형을 Jespersen(1909)에서는 직설법, 접속법, 명령법으로 나누고 그 하위-범주를, 의지(will)가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의 두 집합으로 나누었다. 반면 von Wright(1951)는 진리, 지식, 의무, 존재의 4가지 양식으로 양상을 구분하였고, Rescher(1968)는 ‘필요, 인식, 의무’(alethic, epistemic, deontic)의 양상들을 각각 ‘시간, 의지, 평가, 원인’ 양상들로 더 세분화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본 논문을 심사하던 한분의 심사위원께서 양상을 인식, 의무, (상황)추정, 선호, 교리의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분류가 합당할 것 같다. 2.1에서 보인 ‘-이나’에 관한 이전의 논의들에서, 서로 다른 용어와 기준들로 일관성 없이 나열되어 있던 ‘양상적 의미 해석’을 몇 가지 양상 척도를 기준으로 통합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상 척도를 이용하여 ‘-이나’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척도 함축을 해석하려 한다.

- (4) a. 농사나 짓자/지을 수 있다/지어야 한다.
- b. 운동이나 하자/할 수 있다/해야 한다.

(4)의 예문은 각각 요청, 개연성과 회구성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들을 각각의 양상으로 분류하여 척도상에서 특정한 한 지점에서 해석됨을 보일 것이다.

2.3 한정사로서의 시각

양인석(1973)과 이기동(1993)처럼 ‘-(이)나’를 한정사로 분석해온 전통이 있다. 윤재학(2000)은 ‘-이나’에 대한 분석은 먼저 접속 구문(연결토씨)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정사를 정의하려고 시도하였다. 윤재학은 양인석(1973)의 ‘-이나’가 정도를 나타내면서 이접적 특질을 가지기 때문에,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는 함축과 이기동(1993)의 ‘-이나’의 다양한 의미들은 ‘차선의 집합’을 염두에 둔 대조의 전제에서 발생된다는 주장을 확장하였다.

- (5) a. 할 일이 없으니까 잠이나 자야겠다.
- b. 이런 어려운 문제는 천재나 풀 수 있다.
- c. 손이나 씻고, 식사를 해라.
- d. 이 학교에서는 고등고시에 두 명이나 합격했다.

위는 양인석(1973)에서 나온 예문들이며, ‘잠이나, 천재나, 손이나, 두 명이나’는 각각 a문장에서는 ‘-나’ 붙은 요소(잠)가 선택의 주요소가 아니라고 하였고, b의 경우는 ‘-나’ 붙은 요소가 ‘사건 혹은 행동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c에서는 ‘최소한 요구’ d에서는 ‘두’라는 수는 시험의 어려움이라는 견지에서 큰 수로 여겨진다고 보았다.

- (6) a. 맥주나 마시겠어요.(beer 'not as the first choice')
- b. 몇 사람이나 오셨어요? ('approximately')
- c. 맥주를 열 병이나 마셨어요.(more than expected)
- d. 누구나 올 수 있어요.(just anybody)

위의 예문 (6)에서 간략히 주석을 한 바와 같이 비접속 구문에서 ‘-이나’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용례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된다(Yang, 1972; Lee, 1993, 윤재학, 2000): ‘대략’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전칭양화사/자유선택(free choice)의 기능('just any X'), ‘예상보다 많은 수량’의 의미, ‘차선’의 의미의 네 가지 의미특성이다. ‘not as the first choice(윤재학)’ 대해 양인석(1972)에서는 “차선(the second best choice)”이라고 언급해왔다.

2.3.1 척도와 함축

언어학에서의 척도 표현(scalar expressions)이란 문장들의 해석에서 척도를 요구하는 표현들을 말하며, 논리 양화사들(e.g. all, some), 양화된 한정사들(e.g. few, half), 시간 표현 양화(e.g. always, often), 척도 부사들 {scalar ADVERBS(almost, only, more than)}, 그리고 척도 술어 {scalar PREDICATION (e.g. love, like; must, shall)}등을 포괄해서 말한다.

Grice([1967][1989a]:118)는 단수 주어 가진 모든 문장들을 고려할 때, 말해진 것과 함축하는 것, 즉 함축과 비-상례적 함축들이 사실이라고 고려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10개의 격률과 대화 협력

원칙을 주장했다, 여기서 함축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의도된 의미’를 나타낸다. Horn(1984, 1989, 1991)은 Grice의 이러한 잡다하게 나열된 격률들을 양(Q)과 관계(R)의 두 가지 원리로 통합하였다. 한편으로는 듣는 이의 입장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게끔 화자가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원리(즉 Q-원리)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만큼만 말해서 경제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원리(즉 R-원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7) a. 여섯 시간이나 기다렸다.

b. 거기까지는 십 리나 된다.

위의 (7)에서 ‘여섯 번이나, 십 리나’는 각각 척도로 표현되어져 있다. ‘... 다섯, 여섯, 일곱, ...’, ‘... 구, 십, 십일, ...’의 선형 척도로 각각 선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듣는 이의 입장’으로 ‘-(이)나’ 표현은 앞에 붙은 요소의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Q-원리와도 관계가 되고,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의 경제성에 근거한 척도상의 한 지점만을 나타냄으로 R-원리와도 관계됨을 알 수 있다.

2.3.2 척도 함축과 대체항의 집합

그러나 앞 절에서처럼 Horn의 척도들이 선형적인 것으로 인지됨에 따라, 비선형적인 척도를 갖는 많은 다른 자료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척도의 요소들 사이에 서로 함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들이 Horn의 정의 하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들이 아래 (8)에서처럼 대체항 집합들로 다루어 질 수 있다.

(8) Q: What did John eat?

A: John ate [the apple and the banana]_F.

Scalar Implicature: John ate only the apple and the banana.

Model M<E, F>: E={j, a, b, c}, F(j) = John, F(a) = the apple, F(b) = the banana, F(c) = the cantaloupe, and F(ate) = {<j, a>, <j, b>, <j, a∧>}

위 (8)의 척도 함축은 명제와 동등치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초점을 받은 요소는 척도 함축의 대체항 분석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대체항들의 집합은 ‘-이나’의 척도 함축들의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척도상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척도 함축이 ‘초점’의 대체항들로 구성될 때, 그 대체항들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맥과 초점들의 유형이나 종류가 어떻게 대체항 집합들을 보여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예를 보라:

(9) a. Out of all delicious food that his mother prepares.

Max only eats [HAMBurgers]_F

b. (여자 친구를 사귀겠다는 선수에게 코치가)

[운동]_F이나 해라!

(9a)의 초점에 의해 도입된 대체항들, 즉 "p-set"(Rooth의 용어)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이다. (9b)는 초점 받은 요소가 ‘운동’이며 대체항들의 집합은 ‘운동, 학습, 연애 등’이며, ‘-이나’는 이러한 대체항 집합이 척도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며, 초점을 받은 요소가 그 척도에서 특별한 값을 가린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Gazdar와 Soames의 각각의 정의와 접근법은 이에식(1995)에서 인용되었다. 가장 최근 논의는 Danny Fox(2006)을 들 수 있다.

2.4 정대호 외 2인(2000, 2002)의 확장

Lee, Chung, and Nam(2000)에서는 접속어미 “-(어)도/-(으)나”의 ‘최소 양립성’과 ‘대조’의 의미관계를 통합한 ‘양보(conces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화용론적 척도와 함축의 개념으로 환원하여 해석하였다. Lee, Chung, and Nam(2002)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확장하여, ‘-(이)나’ / ‘-도’가 ‘수사 + 분류사

+ 명사' 와 결합하는 분류사구[CIP]를 형성할 때는 물론 아래 (3)과 같은 문장들도 담화상에서 적절한 개연성의 척도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어 명사구는 이 개연성의 척도에서 가장 개연성이 낮은 하한값을 가리키게 된다고 보았다.

(10) a. 대통령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b. 대통령이나 그 일을 할 수 있지.

(10a)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이 가장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하며, 명제적 의미를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없다', 척도상의 함축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개연성의 척도"에서 대통령이 가장 낮은 값에 해당한다," 추론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도 모두 그 일을 할 수 없다.' 즉, 척도상의 함축은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을 개연성'이 대통령보다 높다는 것이므로, 결국 명제적 의미에 의해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추론이 생겨난다. 이때 척도상의 함축에서 설정된 개연성의 척도는 문장의 술부인 "(x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제공된다고 논의하였다.

(10b)는 "(x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열린 명제를 기준으로 개연성의 척도가 형성되며,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개연성을 갖는 하한 값을 가리키는 함축 해석을 가져온다. 앞으로 이러한 '-이나'의 척도상의 함축 해석을 다양한 구문에 확대하여 적용하려고 한다.

3. 척도의 형식구조

본장에서는 특수조사(혹은 한정사) '-이나'의 함축 해석에서 나타나는 척도의 유형을 분류하고 앞장에서 정의된 '척도상의 함축'을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또한 이들이 나타나는 문맥에서 초점 받는

요소 혹은 '-이나'가 붙은 명사를 대체항들의 집합으로 고려하여 이들을 척도 함축으로 나열할 것이다.

3.1 선형 척도

분류사구가 '-이나'와 결합하는 경우는 주로 선형 척도를 이루며, 선형적인 척도 함축과 대체항들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11) 일본어:	한국어
A: これいくら?	이것 얼마입니까?
B: 1,000円です.	10,000원입니다.
A: 1,000円も, 高いですね!	10,000원이나, 비싸요!
B: 900円だけ(は)下さい.	9,000원만 주세요.

(11)의 대화에서 언급된 한국어의 특수조사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특수조사는 'は(은), だけ(만), も(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본어의 '-도'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이 '-도'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나'로 되어있다. 여기에 주목하여 논의를 시작해보자.

척도의 순서는 선형 순서(linear(or total) order)와 비선형 순서(Non-linear(or Partial) order)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선형 순서의 경우는 '그 영역에 있는 어떤 원소 둘을 뽑아 보면 그 둘 사이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순서'를 말한다. 즉 (11)에서 '만원이나'는 "...만원', '만원', '9천원', '8천원', ..."의 선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대체항들 중 '만원'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만원, ..."의 내용들이 영역(domain)을 이루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는 영역에서는 이들이 선형 순서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선형 순서는 '위의 선형 순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들 사이의 모든 순서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장에서 살펴본 예문 중 분류사와 결합한 경우의 선형척도 예문은 아래와 같다.

(12) a. 이 학교에서는 두 명이나 합격했다.

b. 맥주를 열 병이나 마셨어요.

c. 벌써 세 시나 되었다. d. 한 백 명이나 될까?

(12)는 각각 ‘두 명, 열 병, 세 시, 백 명’이 선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각각 ‘세 명, 열한 명, 네 시, 백 한 명’은 아니라는 함축이 발생하며, 각각의 영역(domain)은 선적인 척도로 표현될 수 있다. 아래 (13)은 선행연구에서 ‘차선이나 배제성’으로 논의되어 온 것들이다.

(13) a.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 b. 당신이나 가시오.

c. 극장에나 가거라. d. 장사나 해 볼까.

(13)은 각각의 화용론상의 선형척도를 고려할 수 있다. 각각 ‘..., 심부름, 공부, 운동(축구선수)’ X, ‘..., 나, 친구, 당신, X’ ‘..., 집, 극장, X’, ‘..., 진학, 장사, X’의 선형척도를 고려할 수 있고, 각각 ‘운동, 당신, 극장, 장사’가 선택되어 있으며, ‘X가 아니다’라는 함축을 고려할 수 있다. a는 축구선수에게 가장 중요도의 척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비선형 척도

분류사구가 아닌 일반명사와 ‘-이나’가 결합하는 경우는 선형과 비선형 척도를 모두 다 나타낼 경우이다. 아래 예를 보자.

(14) a. 김과장이나 오겠지!

b. 김과장이나 와야 할 수 있을 거야!

(14)의 선형척도는 대체항들의 집합들이 각각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사장,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비선형척도는 대체항의 집합들이 ‘...김대리, 이대리, 김과장, 이과장, 박과장, 김부장,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들에서 살펴보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5)a.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넜다.

b. 선생님은 시를 백수나 외우신다더라.

c. 탕수육이나 먹자! d. 대통령이나 오겠지!

e. 새마을이나 타자!

(15)의 예문들은 선형척도로도 비선형척도로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다. 위의 예(15a)에서는, 분류사구(수량 포함) 표현이 ‘-(이)나’ 앞에 나타났다. 즉 선형 척도로 ‘아홉 번’이 ‘...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 중에서 선택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5b)의 ‘분류사구(=N)’로 표현되는 것은 선형 척도로 ‘... 구십구 수, 백 수, 백일 수, ...’의 대체항들(가능한 선형 척도) 중 의외로 높은 것이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15c)에서의 탕수육 또한 선형과 비선형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 선형척도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팔보채, ...등’으로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는 선형척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가격과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도는 선형척도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순서로 표현할 수 없는 ‘선택과 차선 등’이 있을 수 있다. ‘...짜장면, 짬뽕, 우동, 기스면, 탕수육, ...등’으로 가격으로 정의할 수 없는 ‘개인별 선호도’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비선형 척도’의 구조라 한다.

(15d)의 대통령 역시 선형과 비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선형척도는 ‘...차장, 부장, 국장, 총리, 수상, 대통령’의 순서화가 가능한 경우이며, 비선형 척도로는 ‘...한국 대통령, 일본 수상, 미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등’처럼 선적으로 순서화가 불가능한 경우로 나올 수 있다.

(15e)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나’앞에 붙은 N의 가능세계가 등급을 이루고 순서를 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통일호(통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의 순서 중에 있는 집합의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선형순서를 이룬다. 하지만 ‘버스, 우등버스,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비행기, ...등’에서 선택된 ‘새마을호’로 등급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느린 기차 여행을 좋아해서 이러한 순서가 역전되기도 하고 다른 종류의 여행수단들 즉 버스와 비행기 등으로 부분적인 순서화만 가능한 경우 등의 비선형 척도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13)을 다시 비선형 척도로 고려해 볼 수 있다. (13)은 각각의 화용론상의 비선형척도를 고려할 수 있다. 각각 ‘..., 심부름, 공부, 야구, 배구, 축구’X, ‘..., 나,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아버지, 어머니, 당신, X’ ‘..., 집, 학교, 공원, 노래방, 극장, X’, ‘..., 진학, 농사, 사업, 유학, 장사, X’의 비선형척도(위의 척도는 명확한 순서를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다)를 고려할 수 있고, 각각 ‘운동, 당신, 극장, 장사’가 선택되어 있으며, ‘X가 아니다’라는 함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점 받는 ‘이나’붙은 명사의 대체항들의 집합은 선형적인 척도를 이루는 것들과 비선형적인 척도를 이루는 구조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4장에서는 (15)의 단순한 예들로부터 확장하여 선형과 비선형 척도를 이루는 것들이 각각의 다른 양상들과 결합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4. 척도와 양상

앞 절에서 살펴본 ‘이나’와 결합하는 명사들의 척도는 선형 척도로도 비선형 척도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척도로 나타나는 명사들이 각각의 양상들과 결합했을 때는 어떠한 척도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4.1 (비)선형 척도와 양상

Lee, Chung, and Nam(2002)에서는 분류사구와 결합하는 경우에서 확장하여 명사구도 담화상에서 적절한 개연성의 척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주어 명사구는 이 개연성의 척도에서 가장 개연성이 낮은 값을 가리키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연성의 척도’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척도표현이 양상(ex. 개연성, 희구성, ... 등)의 낮은 하한 값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려한다. 양상 부류는 von Wright(1951)와 Rescher(1968)의 양상들과 통합하면, ‘진리(원인), 지식(평가), 의무(의지), 희구(기원)’의 4가지 양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진리(원인), 지식(평가), 의무(의지)’의 양상은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이나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진리(원인)과 지식(평가)는 동일한 인식(epistemic) 양상에서 다른 표현으로 고려할 것이다. 의무(deontic) 양상은 의지와 함께 고려하고, 희구(desiderative)와 기원(optative)의 양상은 화자의 기원과 바람의 미래를 나타내는 현상 즉 모든 가정(혹은 서상)과 관련된 표현을 고려하는 양상으로 다룰 것이다. 따라서 선호(preference), 상황 추정(circumstantial), 교리(doxastic), ... 등의 다른 양상들은 인식 양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려할 것이다.

(16) (아들이 아버지께)a. 아버지, 100원만 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에)b. 100원이나?(상승) b'. 여기 50원.

(16)의 예는 b의 대답의 상승억양에서 나타나는 ‘이나’붙은 분류사구의 대체항의 척도 중 100원이 선택되어진 것이며, 화자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다’는 의미를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은 그런 의미를 절반으로 깎아버림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평가, 지식 양상’의 하나이고 양인석(1972)의 예문을 수정한 것이다.

4.2 양상

양상은 먼저 인식(epistemic)에 포함된 평가, 진리와 원인(evaluative, alethic, causal) 양상, 의무(deontic)와 의지(boulomaic), 그리고 희구(desiderative)와 기원(optative) 양상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아래 예를 보자.

- (17) a. He may come tomorrow.
 b. The book should be on the shelf.
 c. He must be in his office.

(17)에서 a의 may는 ‘가능성과 허가 됨’을, b의 should는 ‘가능성과 당연’, c의 must는 ‘확실성과 의무’로 각각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2.1 인식 양상(epistemic)

먼저 인식 양상에는 평가, 진리와 원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17)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가능성 즉 허가에 관련된 개념, 개연성, 확실성의 개념이 관련된다. (15)의 문장을 각각 ‘-이나 못하다(Neg)’, ‘-이나 ~지!(추측 표현)’ 등과 결합하는 못하다는 평가와 추측의 인식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양상과 지식의 양상들과 ‘-이나’의 공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8) a.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넜는데도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를 못했다. b. 선생님은 시를 백수나 외우신다더라. c. 짜장면이나 나오겠지! d. 대통령이나 오겠지! e. 새마을이나 타자!

(18)에서 나타나는 분류사구(수량 포함) 표현은 각각 ‘-이나’ 앞에 요소가 초점을 받아서, 모든 대체항들이 그와 관련된 수량표현의 위계로서 표현될 수 있다. 그러한 분류사구 표현은 척도상의 함축 즉 ‘...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 ‘..., 구십 구수, 백수, 백 일수, ...’, ‘...짜장면, 짬뽕, 탕수육, 팔보채, ...등’, ‘...차장, 부장, 국장, 총리, 수상, 대통령’, ‘통일호(통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등의 선형척도로 다시 표현될 수 있고, 그런 대체항들 중에 각각 선택된 ‘아홉 번, 백수, 짜장면, 대통령, 새마을’로 표현되어 졌다. 물론 (15)에서도 언급했듯이 (18) a, b는 선형척도가 주로 나타나고 (18) c, d, e는 선형과 비선형 양자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18a)는 ‘아홉 번이나’는 척도상의 함축으로 표현되어 질 수 있는데 즉 수량표현 상에서 ‘아홉 번’이 선택되어 졌고, b에서는 ‘백수’가 선택되어 졌다. ‘...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 ‘..., 구십 구수, 백수, 백 일수, ...’, 등의 척도상의 여러 선형 대체항들 중 ‘아홉’과 ‘백’이 선택되어 있고, ‘열 번’과 ‘백 한수’는 아니라는 함축이 있다. (18)c, d, e의 경우에서 c의 ‘짜장면’은 선형척도는 ‘...킵라면, 떡볶이, 우동, 짜장면, 탕수육, 팔보채, ...등’으로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과 객관적인 순서로 표현할 수 없는 ‘...킵라면, 떡볶이, 짬뽕, 우동, 기스면, 짜장면, 백음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탕수육, ...등’으로 가격으로 정의할 수 없는 ‘개인별 선호도’의 ‘비선형 척도’가 있다. 이 경우 척도상의 함축에서는 ‘짜장면’보다 “비싼 ‘탕수육’과 같은 음식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함축이 생길 수 있다. d의 대통령 역시 선형척도는 ‘...차장, 부장, 국장, 총리, 수상, 대통령’의 순서화가 가능한 경우이며, 비선형 척도로는 ‘...차장, 부장, 한국 대통령, 일본 수상, 미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등’처럼 선적으로 순서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함축은 ‘UN 사무총장은 오지 않겠지’라는 함축이 생길 수 있다. (18e)에서는 ‘통일호(통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의 선형순서 중에 선택된 ‘새마을’과 ‘버스, 우등버스,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비행기, ...등’에서 선택된 등급화가 불가능한 ‘새마을호’가 있다.

특히 (18)c와 d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측’은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어림 짐작성 Horn의 R-원리 관련)에서 지식의 양상과는 다르지만 의외성(많다-화자의 입장 Horn에서의 Q-원리 관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나 (나)오겠지/타자’로 나타나는 지식이나 평가의 양상이다. ‘-이나 기다렸다’, ‘-이나 되었다, 흘렸다.’, ‘-이나 한다.’, ‘-이나 늦었다, 걸렸다.’ 등으로 나타나는 평가의 양상은, 순수 분류사구문과도 결합한다. e의

‘타자’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N 정도면 충분히 많다는 의미와 어느 정도 어렵 짐작성(그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을까?)이 있다. 그러면 차례대로 아래에서 연관된 것들을 살펴보자. 먼저 선형척도를 이루는 지식, 평가의 양상은 아래 (19)과 (20)에 이르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19) a. 벼가 한 섬이나 된다. b. 벌써 아이가 둘이나 되고, 그 중 큰 아이는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

c. 나는 그 화랑에서 두 번이나 개인전을 열었다.

먼저 (19)의 논의에서는 CLP(분류사구)와 ‘-이나’의 결합은 초점을 받은 명사(분류사구)의 대체항들의 집합이 선적인 시간 표현들의 순서로 나타나 척도상의 함축으로 표현되어 진다. 각각 ‘한 섬, 둘, 두 번’과 ‘-(이)나’가 결합하여 ‘의외성’을 나타내어 화자의 입장에서 많다는 기분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4/1, 3/1, 2/1, 4/3...한 섬, ...’, ‘... 하나, 둘, ...’..... 등에서 선택된 표현들이다. (20)을 보자.

(20) a. 여섯 시간이나 기다렸다.

b. 벌써 세 시나 되었다.

(21 a, b)에서 나타난 시간 표현들과 ‘-이나’의 결합은 초점을 받은 명사의 대체항들의 집합이 시간 표현들로 나타나 척도상의 함축으로 표현되어 진다. ‘... 넷, 다섯, 여섯, ...’ 중에 선택된 ‘여섯’이며, 함축은 ‘일곱’ 시간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함축을 선형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모든 표현들은 척도상의 함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의 단위들이 선적인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

비선형 척도를 위해 위의 (18)을 다시 고려해보자. ‘-이나 Neg’, ‘-이나 되는 것처럼...’, ‘~이나 되었겠다’, ‘한 -이나 될까?’, ‘이상이나’, ‘가량이나’ 등으로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양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논의들에서는 ‘어렵성’이라고

논의해온 것들이 이들 양상에서 나타난다. 추측의 양상들은 ‘N + 정도(이상, 가량, 가까이, ...등)’의 불확정 표현들이 붙어서 ‘정확한 선형 척도’를 가리키기 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해왔던 ‘-이나’와의 결합으로 화자의 생각보다 ‘많다’라는 ‘의외성’을 나타낸다.

아래 (21)는 비선형 척도가 ‘몇+(N)이나’와 같이 결합되는 추측의 양상의 예들이다.

(21) a. 그는 조수를 몇 사람씩이나 거느리고 있다.

b. 그는 보통 사람의 몇 갑절이나 많은 일을 한다.

c. 나는 몇 번이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d. 어제 저녁에 몇 시에나 집으로 갔니?

이러한 양상은 정확한 선형적 척도의 수치를 요구하는 척도가 아니다. 아래의 ‘-이나 ~처럼’을 가진 ‘가정척도’와 결합하는 추측의 양상과도 유사하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나 기다렸다’, ‘-이나 되었다, 흘렀다’, ‘-이나 한다’, ‘-이나 늦었다, 걸렸다,’로 나타나고, d와 같이 ‘몇 -이나 ~?’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은 그곳이 천국이나 되는 것처럼 여겼다’의 ‘추측’과도 유사하다. ‘N+이나 ~처럼(듯이/듯)’이 ‘~여겼다, ~참견이다, ~굴뚝라.’의 추측과 결합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15)를 인식 양상 중 원인과 진리를 나타내는 문장과 결합하는 경우 문장이 ‘-이나 된다’, ‘-이나 되고’, ‘-이나 ~겠어’, ‘-이나 ~거야(할 수 있을 거야)’, ‘-이나 ~요구 된다’ 등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확실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양상은 특히 ‘~이나 요구 된다’에서 개연성인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과 겹쳐 나타날 수 있다.

(22) a.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너고도 생생해!

b. 선생님은 시를 백수나 외우신다.

c. 짜장면이나 먹어라!

d. 대통령이나 오실 수 있다면!

e. 새마을이나 탈수 있다면!

(22)에서 분류사구와 결합하는(22a-b)의 ‘-이나’의 해석은 대부분 평가 지식 양상에 속한다. (22)의 예들은 각각 ‘화자의 입장(Q-원리 Horn)’에서 ‘많다(의외성 이전 논의들)’라는 양상을 보이는 예들이다. (22c)에서는 짜장면을 사주는 상황이 ‘돈’이 부족하다는 함축을 만들어냄을, (22d)에서는 ‘대통령 이외의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를, (22e)는 ‘새마을보다 위의 등급은 탈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아래의 (23)의 예들은 ‘평가, 지식의 양상’과 ‘의무, 의지 양상’에서 나타난 ‘-이나’와 ‘-이라도’의 교체와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는 예들이다. 이것은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의 특질들을 모두 공유한다.

- (23) a. 힘이 약하니, 가벼운 것이나(만, 이라도) 들어라.
- b. 힘이 세니까, 무거운 것이나(만, ?이라도) 들어라.
- c. 술은 있다 하고, 커피나(만, 라도) 한잔 하자.
- d. 할 일이 없으니까 잠이나(만, 이라도) 자야겠다.

(23)의 예문은 비선형 척도와 결합하여 ‘만’의 완전성과 ‘-이라도’의 ‘최후의 수단’을 나타내는 성질과 공유하는 ‘-이나’의 ‘차선과 완전성(혹은 배제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아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사한 예를 보자.

- (24) a. 이 문젠 천재나(a'. ?라도 + Neg) 풀 수 있다.
- b. 선생님은 교감에나(b'. 에라도) 출마해보세요.
- c. 이번에는 일등이나(c'. 이라도) 해보세요.

(24)의 예도 ‘-이나’와 결합한 ‘천재’는 개연성을 표현하는 ‘~풀 수 있다’의 양상과 결합하여, “천재 이외에는 풀 수 없다”는 함축이 발생한다. 하지만 a’이 보여주듯 ‘-이라도’의 결합은 Neg와 결합해야 자연스럽고, b’에서 ‘-에나’의 결합은 청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지 않는 어림 짐작성의 R-원리와 화자의 입장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Q-원리를 볼 수 있다.

4.2.2 의무 양상(deontic)

의무(deontic)와 의지(boulomaic)는 ‘-이나 한다’, ‘-이나 해야 한다’, ‘-이나 할 것이다’, ‘-이나 필요하다’, ‘-이나 요구되다’ 등으로 나타나며, ‘의무, 의지, 허가’ 등과 관련을 가진다. 아래의 예들에서 살펴보자.

- (25) a.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너야한다.
- b. ?선생님은 시를 백수나 외워야 한다.
- c. 짜장면이나 먹어야 한다.
- d. 대통령이나 할 수 있다. e. 새마을이나 타야 한다.

(25)에서는 ‘-이나’ 앞의 요소들의 각각의 대체항들 중에서 각각 선택된 ‘아홉 번, 백수, 짜장면, 대통령, 새마을’이다. (25) a는, ‘아홉 번’은 ‘...,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 등의 대체항이 생길 수 있으며, 비선형적인 척도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a와 b는 선형척도만 볼 수 있다. 위의 예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의 개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의무, 의지양상과 지식, 평가양상, 그리고 원인, 진리 양상과도 공통적인 성질을 지닌다. 여기서는 ‘필요’와 ‘의무’라는 개념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26) (자판기 앞) 이 라떼 커피 뽑으려면 동전 다섯 개나 필요해! 너 동전 좀 있니?

위의 보기에서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낸다. 수량사와 결합하는 경우, ‘-이나’붙은 요소의 수사(N)는 현실을 제외한 ‘여러 요소 중에 선택된 차선(=최선)’이라는 것과 (26)에서의 ‘가장 높은 가치’가 수사(N)가 되기 때문에 ‘의외성’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26)의 예는 위해경의 예문을 재구성 한 것이며, ‘-나’는 수량적 표현이고 ‘놀람’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우리는 ‘-이나’ 앞에 요소가 초점을 받아서, 대체항들이 비선형

위계로서 표현되는 구조를 살필 수 있다. (25)의 c에서 d까지의 나머지는 ‘-이나 먹어야 한다, -이나 할 수 있다, -이나 타야한다’와 결합하여 의지를 표현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전의 논의들은 ‘차선’이라고 보아왔다. 아래의 당위를 요구하는 척도를 보자.

(27)a. 아무 것이나 주세요. b. 운동이나 열심히 해라.

(27)의 예들은 ‘희구성(의지)의 척도’와도 관련된다. 이들은 ‘명령, 소망, 제안, 주장, 기원, 요청 등’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전의 논의들에서 나타난 ‘배제성(Exhaustivity)’과 ‘차선’의 ‘-이나’와 연관을 가진다. ‘희구’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명령, 소망, 제안, 주장 등’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바람(기원)이라는 의미에서 관련성을 가진다. ‘차선’으로 언급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원과 함께 사용되거나 ‘배제성’역시 상대방에 대한 바람과 함께 사용됨을 볼 수 있다. ‘-이나 주세요’, ‘-(이)나 ~싶은 ~’, ‘~이나 ~어야 한다’라는 의무의 표현이 이 양상이 될 수 있다.

4.2.3 희구와 기원 양상

‘-이나’와 결합하는 희구와 기원의 양상은 ‘-이나 했으면’, ‘-이나 있다면’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28) a.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널 수 있다면...

b. 시를 백수나 외울 수 있다면.

c. 짜장면이나 먹어봤으면. d. 대통령이나 오셨으면!

e. 새마을이나 타보았으면!

분류사구와 결합하는 경우는 대부분 생각보다 많다는 ‘의외성’을 나타내고 일반 명사구와 결합하는 경우에 청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지 않는 어림

짐작성의 R-원리와 화자의 입장에서 의외성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는 Q-원리를 볼 수 있다. ‘차선’의 의미와 더불어 ‘최후의 수단’ 의미인 ‘-이라도’와 유사한 해석을 가지는 양상의 예들을 보자.

(29) a. 밥이 없으면 라면이나 먹자.

b. 심심한데 영화나 보러 가자.

c. 가까우니 가 점심이나 먹으며 듣기로 하지요.

(29)와 같이 ‘-이나 먹자’ ‘-이나 가자’ ‘-이나 하자’의 청유형의 ‘최후의 수단과 관련된 차선’을 나타내는 표현 역시 ‘-이나’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보인다. (29)a에서 나타나는 ‘-이나’ 앞의 요소는 대체항 집합으로 ‘밥, 라면, 국수, 빵, ... 등’의 비선형 척도들에서 선택되어지는 ‘라면, 영화, 점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과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선형과 비선형의 척도가 나타나는, ‘-이나’붙은 표현의 양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예를 보자.

(30) a. A: 내일 몇 명이나 올까?

B: 열 명이나 올까? B': 한 열 명이나 올까?

B": 글썄, 한 열 명이나 올까?

b. A: 내일 개막식에 누가 올까?

B: 김과장(총리/대통령)이나 오겠지!

B': 수상이나 올까? B": 부사장이나 보내겠지!

(30a)는 선형적인 척도와 ‘인식 양상(epistemic)’의 결합이다. 대화에서 수사적으로(rhetorical) ‘열 명’이 안 올 것 같다는 B와 질문(혼자 추측의 자문)의 의미인 B' 그리고 10명 정도 올 것 같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B"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물론 A는 ‘인식 양상’을 나타내는 비선형 척도에 해당한다. 비선형 척도와 결합한 (30b)도 같은 맥락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초점을 받은 대체항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계급에 따른 선형척도와 계급을 따질 수 없는 비선형 척도(김과장, 이과장, ...등)가 공존 할 수 있다. 또한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 양상’과 ‘확신’등을 나타내는 ‘의무(deontic) 양상’이 나타난다. 아래는 (15) ~ (28)에 걸쳐서 사용한 예문이다.

(31) a. 아홉 번**이나** 강을 ~. b. 시를 백수나 ~.

c. 짜장면**이나** ~. d. 대통령**이나** ~. e. 새마을**이나** ~

위의 예를 각각 평가, 지식, 원인, 진리 양상을 포함하는 인식 양상(epistemic), 의지를 포함한 의무(deontic), 희구를 포함한 기원 양상(optative)의 세 가지 양상으로 살펴보았다. 분류사구와 결합한 (30)의 a와 (31)의 a에서 b의 경우는 대부분 선형척도를 나타내고, (31)의 c에서 e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선형과 비선형을 다 가지는 것을 보았다. 또한 각각 청자의 입장과 화자의 입장으로 나타나는 어림성과 의외성이 각각의 양상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았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 조사 ‘-이나’가 나타나는 문장에서의 척도상의 함축과 관련된 양상에 대하여만 살펴보았다. 계속되는 논의에서는 ‘N이나 N’, ‘N이나 N이나 (N이나)’에 대해서도 결합하는 양상들을 살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의 상관관계도 살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고영근, 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김승곤, 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대 출판부
 남승호, 1997.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그 허가조건. 언어학 22, 217-244. 한국언어학회.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한국 문화사
 위혜경, 2002. Exhaustivity of Focus. 학술대회 발표논문
 양인석, 1973, Semantics of Delimiters 『어학연구』 9-2, 서울대 어학연구소.
 윤재학, 2000, 연접적 ‘이나’ 학술대회 발표논문
 정대호, 이정민, 남승호(2002), ‘-이나’와 ‘-도’의 의미론:

분류사구와 결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38-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학회(1999) 『한국어의 격과 조사』 月印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홍사만 『한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つくば言語文化フォーラム編 Hituzi Linguistics Workshop Series No.3 『「も」の言語学』
 Angelika Kratzer(2003) Semantics critical concepts IV 63.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Beaver & Clark (2003) "Always and Only: Why not all focus-sensitive operators are alike" *Natural Language Semantics* 11, 323-362.
 Beaver (2004) "Five only pieces" *Theoretical Linguistics*.
 Buering and Hartmann (2001) "The Syntax and Semantics of Focus-Sensitive Particles in German" *NLLT* 19, 229-281.
 Danny Fox(2006) Free Choice and the theory of Scalar Implicatures
 Laurence R, Horn and Gregory Ward (2004)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Publishing
 F.R.Palme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nnifer Coates(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Kato, Y.(1985) 'Negative sentences in Japanese' *Sophia Linguistica*, 19, Sophia University
 Krifka (2005?) "Association with Focus Phrases". In *Architecture of Focus*. Mouton de Gruyter.
 Kiss(1998) "Identificational Focus versus Informational Focus" *Language* 74, 245-273.
 Yae-Sheik Lee(1995) Scales And Alternatives: Disjunction, Exhaustivity, And Emphatic Particles
 Lee (2005b) "The Scope and Presupposition of the Additive Particle -to" *Language Research* 41, 305-330.
 Nam, S.-H.(1997). The Semantics of 'before' and negative polarity. Paper presented at the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Cornell University, Ithaca.
 Rooth (1996) "Focus" in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lackwell.
 Rullmann (2003) "Additive Particles and Polarity" *Journal of Semantics* 20, 329-401.
 Schwarz(2005) "Scalar Additive Particles under Negative Context" *Natural Language Semantics* 13, 125-168.